

경기장 밖도 즐겁다... K팝 VR체험부터 먹거리 등 '풍성'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기장 인근에 마켓스트리트 운영 자율주행차량·무인비행선 등 선별 국악·무용 공연, 이벤트 등 다채 외국인 위한 전통문화 체험도 마련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경기장 밖에도 즐길 거리가 수두룩하다. 마켓스트리트가 대표적이다.

수영대회기간 주경기장인 남부대학교와 아티스틱수영 경기장인 염주체육관에서 운영되는 마켓스트리트는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로 경기장을 찾는 관람객에게 훌륭한 재미를 선사한다.

남부대 마켓스트리트는 오는 12일부터 8월18일까지 31일간 남부대학교 입구에서부터 주경기장 앞까지 1만1630㎡ 규모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다만, 선수권대회에서 마스터즈 대회로 전환하는 29일부터 8월4일까지는 휴장한다.

염주체육관 마켓스트리트는 실내수영장 주차장에 500㎡ 규모로 설치돼 12일부터 8월11일까지 아티스틱수영 경



마켓스트리트 조감도

기가 진행되는 16일간 운영된다.

남부대 마켓스트리트는 크게 정보통신기술(ICT)체험관, 푸드코트(트럭), 문화예술 공연장, 기념품 판매소, 후원사 및 지자체 홍보관으로 구성돼 있다.

주경기장인 남부대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정보통신기술(ICT)체험관을 만날 수 있다. 대회 주관통신사인 KT와 국립광주과학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참여해 정보통신기술 강국인 우리나라 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KT의 5세대이동통신(5G) 기술력으로 운영하는 무인 비행선(스카이십)을 비롯해 자율주행차량 시뮬레이터(리모트 콕핏), 가상 라이브 티비 등 8종목이 선보인다.

특히 KT는 선수권대회 개막식 전후로 남부대 주경기장에 스카이십을 상공에 띄워 대회홍보와 촬영된 영상을 정보통신기술(ICT) 체험관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 자율주행버스도 대회기간 중 4일간 운영할 계획이다.

‘국립광주과학관’에서는대회종목을 주제로 다이빙, 수영, 수구, 아티스틱수영 등 수상 스포츠의 가상현실(VR)·증강현실(AR)과 인터랙티브 등 체험형 콘텐츠와 정보통신기술(ICT)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휴게존에는 장애물 감지가 가능한 로봇물고기, 휴먼로이드 로봇들의 다양한 댄스로봇무대와아이스크림 로봇이설치돼 국내 로봇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광주기업이 제작한 콘텐츠를 이용해 광주를 표현할 수 있는 무등산 생태·역사·문화를 주제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

선수촌내에도 설치될 정보통신기술(ICT) 체험관은 선수들이 즐길 수 있도록 실시간 가상현실(VR) 게임과 케이팝(K-POP) 음악을 감상하며 댄스의 율동을 따라하는 ‘케이댄스(K-Dance)’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체험존을 운영한다.

정보통신기술(ICT)체험관을 지나면 푸드코트존과 문화예술 공연장이 나타난다.

푸드코트존에는 푸드트럭 등 10여개 상점이 들어서 이색적인 먹거리와 다양

한 간식으로 경기장을 찾은 내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드코트존 옆 잔디밭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진다. 특설 무대에서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국악, 전통무용 등 공연을 비롯해, 이벤트 행사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마련돼 있다. 다만, 관람객 안전을 위해 무더위 시간인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는 휴식을 취하게 된다.

특히 후원사 홍보관에는 삼성, 아레나 등 대회 후원기업 홍보관이 들어서 각 후원의 제품 홍보 및 체험, 판매 등이 이뤄지고, 국제수영연맹(FINA) 체험관에서는 수영종목에 대해 체험해 보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외국인 관람객을 겨냥해 폐백상, 돌상 등 상처림에서 사진을 찍고 지역의 전통음식을 구경하는 공간과, 전통 궁중복장과 전통혼례복장을 입어보고 체험하는 부스를 마련해 한국 전통의 멋과 맛을 알릴 계획이다.

이밖에 시·도의 날을 지정해 16개 시·도에서 순차적으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20여개의 다양한 기관과 기업이 마켓스트리트에 참여한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서울시 공무원들이 전남 양파와 마늘 팔아주기 행사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청

서울시공무원, 전남산 양파·마늘 먹는다

판촉 홍보 가교역할 등 도농 상생

서울시 공무원들이 전남 양파와 마늘 팔아주기에 나서고 있어 도농 상생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1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최근 풍작으로 양파와 마늘 가격이 폭락해 농민들이 시름에 잠긴 가운데, 서울시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양파와 마늘 6500kg을 구매했다. 이들은 양파 15kg

한 마에 9000원, 간마늘 1kg 한 봉지에 7000원에 샀다.

또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구내식당에서도 전남 양파와 마늘 소비 촉진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 전남 무안 산지에서 직송한 양파와 마늘은 선선하고, 품질이 우수하다는 호평을 받아 추가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봉채영 기자

귀농·귀어·귀촌, 전남만 전국 유일 증가

지난해 총 4만761명 유입 '전남서 먼저 살아보기' 추진

전라남도는 2018년 한 해 동안 전국 귀농·귀어·귀촌인이 줄어든 가운데 전남으로 3만여 가구가 유입돼 귀농인, 귀어인, 귀촌인, 세 분야 모두에서 유입 가구 수가 늘어난 유일한 광역지자체로 기록됐다고 1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통계청이 공동 발표한 '2018년 귀농어·귀촌인 통계'를 분석한 결과 3만910가구 4만761명이 2018년 한 해 동안 전남으로 귀농·귀어·귀촌했다.

전남 귀농인은 2만 26가구 2963명, 귀어인은 320가구 449명, 귀촌인은 2만 8562가구 3만 7349명이다.

전국 귀농어·귀촌 가구는 전년보다 6444가구, 가구원 수는 2만 6561명이 줄

어드는 등 감소 추세인 반면 전남은 귀농가구 101가구(5.2%), 귀어가구 37가구(13%), 귀촌가구 389가구(1.4%)가 늘었다.

전국적으로 귀농가구가 늘어난 곳은 전남과 세종 2곳 뿐이고, 귀어가구가 늘어난 곳은 전남과 울산, 강원, 충북, 제주이며, 귀촌가구가 늘어난 곳은 전남과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전북, 경북, 제주 등이다.

전남지역 귀농어·귀촌가구는 연령별로 30대 이하가 1만 1천946가구로, 전체의 38.6%를 차지하고 있다. 젊은 청년층이 청정지역 전남에서 친환경농업 등 전남 농업의 경쟁력을 보고 귀농어·귀촌을 많이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라남도가 지난해 7월 민선7기 이후 인구 감소에 대비해 전국 최초로 인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

고, 수도권 등 대도시 예비 귀농어·귀촌인을 유치하기 위해 대기업 등을 상대로 '찾아가는 귀농어·귀촌 설명회', '도시민 현장체험활동'을 펼쳐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선 것도 한몫 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으로 증가하던 귀농어·귀촌의 추세가 이제는 거품이 걷히고 차츰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의 흐름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기 위해 다양하고 독특한 귀농어·귀촌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 대도시 예비 귀농어·귀촌인 유입을 위해 수도권에 '전라남도 귀농어·귀촌종합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전국 최초로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귀농어·귀촌 어울림마을' 14개소를 조성하고, '찾아가는 융화교육'도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봉채영 기자

오늘의 날씨

7월 2일 (화)
음력 : 5월 30일

수도권 날씨
30~20°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연천 18/29, 동두천 17/30, 가평 17/29, 양평 18/31, 용인 20/28, 평택 18/30, 수원 20/28, 인천 20/26, 파주 18/28, 서울 20/30, 백령도 18/26

해돋이 / 05:15 | 해질 / 19:57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안성시 안성맞춤천문과학관 천체투영관 영상제 운영

안성시가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안성맞춤천문과학관에서 '천체투영관 영상제'를 운영한다.

이번 '천체투영관영상제'에서 안성맞춤천문과학관의 천체투영관(4D영상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동영상들 중 총 11편과 신작 1편을 시민들에게 소개한다.

또한 이번영상제에서는 영화관처럼 매화 다른 영상물을 상영할 예정이다.

천체투영관(4D영상관)에서는 의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로 5세 미만의 유아나 키 100cm 미만의 유아는 입장할 수 없다. /경기 안성=이보현 기자

평택시 관광 계획 수립에 100명 머리 맞댄다

8일 100인 원탁토론회 개최

평택시는 오는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 단체, 기업, 전문가, 공무원 등 100여명을 초청해 평택시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100인 원탁토론회를 개최한다.

시는 지난 5월 17일 시 유관 사업부서 및 담당공무원의 1차 워크숍을 진행, 관광 관련 주요사업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개최하는 100인 원탁토론회는 용역대행사 쥬스컴퍼니가 일괄 진행

을 맡고 대행사 대표로부터 평택시 관광진흥 종합계획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게된다.

이어 동국대 호텔관광경영학부 김남현 교수로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특강, 마지막으로 퍼실리테이터(조력자)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원탁토론회가 진행된다.

시는 이번 원탁토론회에서 시민과 함께 관광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을 거쳐 평택시 관광진흥 종합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경기 평택=이보현 기자 bhlee7777@